

I. 논리와 비판적 사고 능력 (30%)

※ 시험시간: 13:00 ~ 13:50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연필 사용 금지)
2. 각 문제의 답은 반드시 해당 답안지에 작성하여 문제지와 함께 제출할 것
3. 시험 실시 시간을 어길 경우 0점 처리함

1. 다음 중 바르게 규정된 것만으로 묶은 것은?

- 가. 논리학은 사고의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다.
 나. 논증은 하나의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이끌어내는 사고 활동이다.
 다. 논리적 유관성은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이 맺고 있어야 하는 특성이다.
 라. 논증에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마. 연역 논증에서 논리적 유관성은 필연적이어야 한다.
 바. 귀납 논증에서 논리적 유관성은 개연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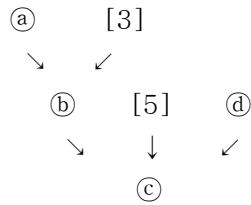
-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바
 ③ 나,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바

2. 다음의 글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정신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고,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으며, 다량을 장기 복용할 때 심신을 파괴하는 물질은 모두 마약이다. 그런데 술이나 담배는 그런 특성을 갖는 물질이다.
 ② 국가의 강제에 동의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부당하다.
 ③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물 분자들에 열이 전달되어 각 물 분자들이 뜨거워진다. 그러므로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④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기도는 65%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의 65%가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진정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름다움에 맞추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네는 그림 그린답시고 삶을 포기하다 시피하고 되는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난 자네를 진정한 화가로 보지 않네!

3. 다음의 글을 논증으로 구성하여 아래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나타낼 때, 빈 칸을 채우면?

[1]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미국의 노동부가 비농업적인 성격을 띠는 제조업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1969년에는 그 비율이 거의 24%에 육박했으며, 1990년에는 약 19%로 하락했다. 이와 같이 그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즉 [2]이자율의 상승과 [3]출산율의 저하 때문에 [4]자동차와 냉장고 및 다른 고가품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욕구가 감소하고 있다. [5]미국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6]미국의 산업이 점차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



- ① (a): [2], (b): [1]
- ② (a): [2], (c): [1]
- ③ (b): [6], (c): [4]
- ④ (a): [4], (b): [6]
- ⑤ (a): [1], (c): [2]

4. “보수를 받고 시합에 참가하는 어떤 체육인은 아마추어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다음의 명제들 가운데 ‘참’일 수 있는 것을 고르면?

가. “보수를 받고 시합에 참가하는 모든 체육인은 아마추어이다.”
 나. “어느 아마추어도 보수를 받고 시합에 참가하는 체육인이 아니다.”
 다. “보수를 받고 시합에 참가하는 어떤 체육인은 아마추어가 아니다.”
 라. “어떤 아마추어는 보수를 받고 시합에 참가하는 체육인이다.”
 마. “보수를 받고 시합에 참가하는 어느 체육인도 아마추어가 아니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다, 라
- ④ 라, 마
- ⑤ 가, 마

5. 아래의 논증들 중에서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반드시 ‘참’인 것은?

- ① 모든 정치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은 누구라도 정치인이다.
- ②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직한 사람도 정치인이 아니다.
- ③ 어떤 정치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정치인이 아니다.
- ④ 어떤 정치인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직한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 ⑤ 모든 정치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정직한 사람은 정치인이다.

6. 다음의 논증을 바르게 평가한 것을 묶는다면?

만약 을지문덕이 난중일기를 썼다면, 그는 위대한 장군이다. 을지문덕은 위대한 장군이다. 그러므로 을지문덕이 난중일기를 썼다.

가. 이 논증은 가언적 삼단논증의 긍정식이다.
 나. 이 논증은 타당한 형식에 대전제가 ‘거짓’인 논증이다.
 다. 이 논증에서 모든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의 ‘참’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라. 이 논증은 형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마. 이 논증의 결론은 거짓이다.
 바. 이 논증의 형식적 타당성은 대전제의 전건과 후건이 맺고 있는 관계에 의존한다.

- ① 가, 나, 바
- ② 나, 다, 마
- ③ 다, 라, 바
- ④ 라, 마, 바
- ⑤ 가, 나, 마

7. 다음 글의 결론을 적절하게 평가한 것들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한 연구팀은 지난 10년 동안 흡연과 폐암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해 왔다. 국내에 거주하는 30세에서 60세 나이의 성인 중 하루에 담배를 반 갑을 피우는 사람 100명, 한 갑을 피우는 사람 100명, 두 갑을 피우는 사람 100명을 각각 임의로 선정하여 세 개의 표본을 구성했다.

그 표본들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폐암 발생률을 조사해 보았더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로 구성된 표본일수록 폐암 발병률이 더 증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흡연이 폐암의 주요한 인과적 원인이라고 이 연구팀은 결론 내렸다.

<보기>

가. 별도의 대조 실험에서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얻는다면, 그 결론은 강화된다.
 나. 흡연이 폐암 이외에도 다른 부정적 효과들을 낳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결론은 약화된다.
 다. 흡연 의존성과 폐암을 모두 야기하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 결론은 강화되지 않는다.
 라. 동일한 실험 방식을 이용한 쥐 실험에서 담배연기에 더 많이 노출된 쥐일수록 폐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 결론은 약화되지 않는다.
 마. 공해 물질이나 유해한 먼지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폐암과 상관된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결론은 강화된다.

- ① 가, 라
- ② 나, 다
- ③ 라, 마
- ④ 가, 나, 마
- ⑤ 가, 다, 라

8. 다음의 글에 포함된 논증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사실들 가운데 하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광범위한 불일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있어 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육식이 올바른지 여부를 두고 한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굉장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은 시대마다 아주 다르기도 하다. 심지어 우리는 동일한 문화와 시대 안에서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윤리적 기준은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상대주의의 핵심 논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참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 ①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 ② 윤리적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윤리적 기준도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③ 윤리적 상대주의가 옳다고 해서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이 항상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 ④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문화에 따른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윤리적 기준은 보편적으로 신봉되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 올바른 판단은 하나뿐이며, 그런 올바른 판단을 옳게 만들어 주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9. 다음 글의 논리적 추론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갖는 이기주의적 성향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관찰하면, 너무나 많은 생사의 고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비를 넘는 과정이 순전히 행운에 맡겨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생명체가 자신의 의지로 이런 고비를 넘어야 할 때에는 이기주의적 전략이 거의 항상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기적일 것을 인간은 요구받고, 또 이 요구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것이 이런 인간의 처지에 대한 반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기주의적 전략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것은 개인적 이기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등장한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다른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민족주의 역시 집단적 이기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인간의 이기주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주장들보다 도덕적 우월성을 지닌다. 민족주의적 입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많은 정치적 난제들은 쉽게 풀릴 수 있다.

- ① 민족주의를 고수했을 때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②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만이 아니라는 점을 무시했다.
- ③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와 같이 이타주의적 예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④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같은 파괴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예를 무시했다.
- 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

10. 다음의 글에서 정언적 삼단논증을 구성하는 하나의 명제가 생략되었다. 타당한 정언적 삼단논증이 될 수 있도록 생략된 명제를 찾는다면?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조급한 사람은 누구라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조급한 사람도 훌륭하지 않다. 그런데 또한 누구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 ① 대전제인 “훌륭한 사람은 누구라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가 생략되었다.
- ② 소전제인 “훌륭한 사람은 누구라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가 생략되었다.
- ③ 대전제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가 생략되었다.
- ④ 소전제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훌륭한 사람이다.”가 생략되었다.
- ⑤ 대전제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가 생략되었다.

11. 다음의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봄맞이 친선대회”에 대해 아래의 <정보>를 근거로 내린 판단 가운데 반드시 참인 것은?

10개 팀으로 구성된 어떤 조기축구연합회에서는 산하 회원팀에게 1에서 10까지의 번호를 추첨하도록 하여 “봄맞이 친선대회”를 개최하였다. 추첨된 번호표에 따라 제1번 팀과 제2번 팀이 먼저 경기하고, 여기서 이긴 팀이 제3번 팀과, 여기서 이긴 팀이 제4번 팀과 경기하는 방식으로 총 9차례 경기가 이루어졌다.

<정보>

- 1. 10개의 팀 중 7개 팀은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였다.
- 2. 제5번 팀과 제6번 팀은 시합을 가졌다.
- 3. 제7번 팀과 제9번 팀은 시합을 가졌다.
- 4. 제2번 팀과 제4번 팀은 시합을 가지지 않았다.

- ① 최종 승리 팀은 제9번 팀이다.
- ② 제1번 팀은 2번의 경기를 이겼다.
- ③ 제4번 팀은 1번의 경기를 이겼다.
- ④ 제7번 팀은 4번의 경기를 이겼다.
- ⑤ 한 경기 이상 이긴 팀은 제1번 팀, 제3번 팀, 제7번 팀이다.

12. 다음의 논증들 가운데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자인 동시에 수학자인 사람은 모두 천재이다. 어떤 수학자도 천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수학자인 동시에 과학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 ② 모든 과학자는 신을 믿는다.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물론자가 아니다. 어떤 유물론자는 진화론자이다. 그러므로 어떤 진화론자는 과학자가 아니다.
- ③ 만일 강수연이 부산 영화제에 참석한다면 광주의 동창회에는 불참할 것이다. 만일 강수연이 광주의 동창회에 참석한다면, 김준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수연은 부산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거나 김준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 ④ 외국어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문화에 관심이 있다. 외국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중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중 일부는 외국어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 ⑤ 강수연이 김준수도 사랑하고 김재중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강수연은 김준수를 사랑하거나 김재중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강수연이 김준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강수연은 김재중을 사랑하고, 강수연이 김재중을 사랑하면 강수연은 김준수 사랑하지 않는다.

13. 다음의 정의에 따를 때, 서로 모순되는 주장의 쌍으로 묶은 것은?

<정의>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은 하나의 주장이 참이라면 다른 하나의 주장은 거짓이고, 또한 하나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다른 하나의 주장은 참이 된다.

- ① 정치가 중 정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 : 정직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정치가이다
- ②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 핵전쟁이 일어나도 하늘이 돕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 ③ 완벽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 :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완벽한 정부는 있을 수 있다
- ④ 그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거나 잘못된 문제이다 : 그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 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노사관계가 안정되었지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

14.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자만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참이다.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존재자는 사유할 수 없지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존재자는 사유할 수 있다. 이와 연관 지어 ‘사유’, ‘행위’, 그리고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존재자이든지 그것이 사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 때만 행위할 수 있다. 둘째,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자는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는 존재자들이 있다. 그런 존재자들 중 하나를 ‘아톰’라고 해 보자.

- ① 아톰은 자유의지를 갖지 않거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만일 아톰이 사람이라면, 아톰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 ③ 아톰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다.
- ④ 만일 아톰이 사유할 수 없다면, 아톰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만일 아톰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 아톰은 자유의지를 갖는다.

15. 다음의 사례에서 아래의 <추론 방법>에 따라 찾은 몸무게의 감소 원인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은?

평소 70Kg이 나가던 정식이는 지난 몇 달간 하루 10시간씩 잠을 자고, 밥을 끼니 당 3공기씩 4끼를 먹고, 야식으로 라면 2개를 끓여 먹었으며, 5분 이상 걷지 않았다. 몸이 이상해 지난 달 초 병원에 가서 몸무게를 달아보니 85Kg이었다. 의사는 다른 이상은 없으나 건강을 위해 원래 몸무게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식이는 몸무게를 원상태로 돌리려고 생활 습관을 바꾸었다. 첫 2주간은 하루 8시간씩 자고, 끼니 당 2공기씩 3끼 식사를 하고, 야식으로 라면을 1개 끓여 먹고, 10분씩 걸었더니 몸무게가 80Kg이 되었다. 다음 2주간은 하루 8시간씩 자고, 끼니 당 1.5공기씩 3끼 식사를 하고, 야식을 끊고, 20분씩 걸었더니 몸무게가 77Kg이 되었다. 그 다음 2주간은 하루 7시간씩 자고, 끼니 당 1.5공기씩 2끼 식사를 하고, 야식 없이 30분씩 걸었는데 몸무게가 그대로였다. 최근 2주간은 하루 6시간씩 자고, 끼니 당 1공기씩 2끼 식사를 하고, 야식 없이 1시간씩 걸었는데 몸무게가 72Kg이 되었다.

<추론 방법: 공변법>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변할 때 결과도 일정한 방식으로 변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원인으로 간주한다.

- ① 야식의 양
- ② 수면의 시간
- ③ 운동의 시간
- ④ 끼니 당 밥공기의 수
- ⑤ 야식을 제외하고 하루 동안 먹은 밥공기의 수

16. 다음 글이 비판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여가를 누리는 것보다 노동을 통해 가외로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호한다. 반면 이러한 노동, 즉 추가적인 노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에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보다 여가 활동을 선호한다.

추가적인 노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여가 시간 중 일부 시간을 빼앗아 노동을 시켜 곤궁한 자를 위해 사용하려는 제도가 불법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도 합법적일 수 없다.

추가적인 노동 없이도 자신의 행복을 쉽사리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은 예외로 하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일해야 하는 불운한 사람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영화광이라서 입장권을 사기 위해 가외로 일해야 하는 사람은 곤궁한 자를 돕기 위해 세금을 내어야 하고, 가외로 일하지 않으면서 무료로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

- ①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만큼의 소득에 대한 과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에 대한 과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결국 그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에 대한 과세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여가 활동에 대해서 그 중 일부 시간을 곤궁한 자를 위해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행복을 위해서 가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더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17. 다음의 글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은?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과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자녀들과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학인재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학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올해 다문화 모집부문은 이해, 수용, 확산, 융합 총 4부문이고, 각 부문마다 한 명씩 선정되었다.

최종심사에 오른 갑, 을, 병, 정, 무는 심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측하였는데, 이 중 넷은 옳았지만 하나는 틀렸다.

갑: 을이 이해 부문에 선정되었거나, 정이 확산 부문에 선정되었다.

을: 무가 수용 부문에 선정되었거나, 정이 확산 부문에 선정되지 않았다.

병: 을은 이해 부문에 선정되지 않았고, 무는 수용 부문에 선정되지 않았다.

정: 갑은 융합 부문에 선정되었고, 무는 수용 부문에 선정되었다.

무: 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선정되었고, 정이 확산 부문에 선정되었다.

- ① 갑은 선정되지 않았다.
- ② 을이 이해 부문에 선정되었다.
- ③ 병이 확산 부문에 선정되었다.
- ④ 정이 수용 부문에 선정되었다.
- ⑤ 무가 융합 부문에 선정되었다.

18. 다음의 글로 “우리사회의 출산율 저하 문제”라는 주제를 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순서는?

가. 출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나. 출산율 저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한다.

다. 우리사회에서는 육아와 출산의 부담이 개인과 여성에게 지워져 있다.

라. 한국 출산율은 2005년에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마. 보육시설의 확대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여준다.

바. 한국이 핵가족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출산이 여성의 미덕이 되지 못한다.

사. 프랑스에서는 셋째 아이부터 육아, 교육, 문화생활 지원이라는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① 가-나-마-바-라-다-사
- ② 나-라-바-다-사-가-마
- ③ 다-나-라-마-가-사-나
- ④ 라-다-가-바-마-사-나
- ⑤ 바-다-사-나-마-라-가

19. 다음의 (A)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소크라테스: 경건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요?
 에우티프론: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경건하나, 신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자, 당신의 논리를 검토해 봅시다. 경건함과 경건하지 못함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당신이 말했지 않소?
 에우티프론: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또한 신들도 의견이 달라 다툰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소?
 에우티프론: 실은 그랬죠.
 소크라테스: (A)
 에우티프론: 제가 경건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 ① 그런데 신들도 싸우는데 하물며 나약하지 짝이 없는 인간인들 못 싸우겠소?
- ② 그런데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신은 사랑하고 어떤 신은 미워할 수도 있지 않소?
- ③ 그런데 과연 신들은 인간이 가진 경건함을 쉽게 인정해줄 것 같소?
- ④ 그런데 신들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여전히 경건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소?
- ⑤ 그런데 신들도 경건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데 인간의 의견이 어찌 같을 수 있겠소?

20. 다음의 ‘사례’의 빈 칸에 들어가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개 념	설 명	사 례
기술 선택의 자동성	두 가지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할 때, 효율성이 유일한 규칙이다.	㉠
기술의 자기 확장성	기술의 발전에서 인간의 개입이 줄어들고 한 기술의 발전이 다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
기술 일원주의	기술을 악용하는 것과 선용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다.	㉢
기술의 자율성	인간의 필요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	㉣

가. 오늘날 엄청난 규모의 국제 금융 시장이 형성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나. 새로 나온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 옛 버전을 설 수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이 새 버전으로 작성한 파일을 옛 버전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10년 전에 있었던, 상점 한 구석에서 직접 도장칼로 목도장을 파주던 도장집이 사라지고, 요즘은 문구점에서 프린터와 같이 생긴 기계를 컴퓨터로 조작하여 목도장을 만든다.

라.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표절을 쉽게 하는 것과 교수가 인터넷을 통해 표절을 찾아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 ㉡ ㉢ ㉣

- ① 가, 다, 나, 라
- ② 나, 가, 라, 다
- ③ 다, 가, 라, 나
- ④ 라, 나, 다, 가
- ⑤ 라, 나, 가, 다